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신분 위상과 부부갈등

김서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고전산문교육 전공
suhyoonk@hanmail.net

- I. 머리말
- II. 남성 인물의 성격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부부갈등 해석의 성과와 한계
- III. 여성 인물의 사회적 처지에 따른 부부갈등의 발생과 전개
- IV. 맺음말

I. 머리말

18세기 후반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씨양옹쌍린기>는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남녀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의 특징은 가문 안팎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현수문-현경문 형제의 부부갈등에만 초점을 맞춰 색다른 흥미를 자아냈다는 점이다. 몇몇 한정된 인물에 집중하여 치밀하고 세련되게 이야기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전문 작가의 손길이 닿은 작품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¹⁾

부부갈등에서 흔히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남성 인물들의 성격적 결함이다. 현수문과 현경문 형제는 사회적 지위는 높지만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문제적 남성’으로 묘사된다.²⁾ 한편 그들과 갈등을 벌이는 윤희빙과 주여교는 자존감이 강한 여성들로서 남편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며 친절에 대해서도 온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주체적 여성들이다. 이러한 여성 인물들의 주체적 형상은 가문소설을 즐겨 읽었던 당대의 여성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부부관계라는 사적 생활 영역에 대한 내밀한 소통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도 하였으리라고 생각되고 있다.³⁾

특히 호방한 형 현수문과 냉담한 아우 현경문의 성격 대비는 부부갈등의 흥미를 높이는 요소이다. 형제의 판이한 성품이 서로 다른 양상의 부부갈등을 촉발하면서 이야기는 한층 다채롭고 입체적으로 전개된다. 형제가 모두 일정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되, 그 구체적 양상은 서로 대조를 이루게 함으로써 작품에서는 실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부부간의 기질 또는 성격 대립 상황을 설정하였으면서도 작품에서 두 부부의 갈등이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지

1) 김지연, 「〈현씨양옹쌍린기〉의 단일 갈등 구조와 인물 형상의 관계」, 『민족문화사연구』 제28권(2005), 220-247쪽.

2) 이영택,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158-162쪽.

3) 최기숙,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화적 재배치 -‘현경문-주소저’ 부부 관련 서사분석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0집(2010), 332-334쪽.

는 않는다는 점이다. 현경문-주여교의 갈등이 작품의 중심축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반면, 현수문-윤혜빙의 갈등은 다소 산발적으로 서술되면서 부차적 흥미소로 작용한다. 또 주여교의 주체성이 일광대사의 도움을 받아 '운유자'라는 여성 영웅의 형상으로까지 발전하며 결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남편과 대립하는 반면, 윤혜빙은 산중에 숨어 현수문의 핍박을 피할 뿐 별다른 사회적 활약은 보이지 못하며 결국 시아버지의 설득으로 현부로 돌아와서는 현수문에게 굴욕을 당하게 된다.

만약 작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부부간의 개인적 기질 대립이라면, 이와 같이 현경문 부부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게 된 까닭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일종의 상업적 오락물인 소설 텍스트에서 시종일관 심각한 긴장감만 자아낼 수는 없는 일이기에,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조화하고자 두 부부의 이야기에 비중과 역할을 달리 부여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⁴⁾, 왜 현수문 부부가 부차적 역할을 맡고 현경문 부부의 이야기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몽쌍룡기>에서처럼 한쪽이 모범 사례로 제시되고 다른 한쪽이 비판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닌 이상, 두 부부의 이야기에는 단지 성격 대립담의 여러 유형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내재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두 부부의 갈등서사를 남녀 개인 간의 강한 기질 대립으로만 보지 않고 각각의 이야기가 지닌 사회적 의미의 차이에 좀 더 천착해보려 한다. 다시 말해 소설의 주요 독자층이었을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처지에서 볼 때 두 부부의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같지 않았으리라는 점, 현수문-윤혜빙 부부갈등의 경우 독자들이 쉽게 공감하기만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으리라는 추정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추정하에 이 글에서는 먼저 개인 간 성격 대립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시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본 뒤,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재해석해볼 만한 부분들을 탐색하여 두 부부의 갈등이 서로 다른 비중을 차지하게 된 까닭을 생각해보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 이지하,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2), 45쪽.

〈현씨양옹쌍린기〉의 이본들 중 이 글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선본으로 추정된 낙선재본이다. 낙선재본은 내용이 풍부하며 서사 전개가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현씨양옹쌍린기〉 이본들 중 최선본으로 알려져 있다.⁵⁾ 한편 서울 동호 일대에서 유통된 세책본으로 밝혀진 연세대본의 경우 낙선재본에 비해 중하 계층 남성들에게도 많이 읽혔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독자층과 수용 맥락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낙선재본과 연세대본의 차이도 다루어보기로 한다.

II. 남성 인물의 성격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부부갈등 해석의 성과와 한계

〈현씨양옹쌍린기〉에서 부부갈등은 일차적으로 인물 개인의 성격 탓으로 그려진다. 장자인 현수문은 지나치게 호방한 성격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다. 그는 정실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촌 장시랑의 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윤혜빙에게 매혹되어 그녀를 위력으로 겁탈하려 한다. 윤혜빙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을 시도하는 등 결사적으로 저항하지만, 현수문은 아랑곳하지 않고 윤혜빙을 자신의 첩으로 대우한다. 윤혜빙이 윤추밀의 잃어버린 딸임이 밝혀진 뒤에도 현수문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정식 혼인 절차가 논의되기도 전에 그는 또다시 남몰래 윤혜빙을 찾아가 굴복을 받아내려 하는데, 이러한 위압적 태도로 인해 윤혜빙은 점점 더 현수문에게 반감을 품게 된다.

반면 현경문은 형과는 반대로 냉담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의 인물이다.⁶⁾ 그는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를 대하고서도 미색을 경계하려는 생각에 본 체도 않는가 하면, 그런 자신의 냉정함을 질책하는 장인과 장모의

5) 이다원, 「〈현씨양옹쌍린기〉 연구: 연대본 ‘현씨양옹쌍린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15쪽.

6) 서두에서 현수문은 활달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현경문은 엄숙하고 냉정한 성품으로 각각 묘사된다.

“장궈 슈문은 활달대도호고 침묵언회호여 화괴온궈호고 츠궈 경문은 어일엄숙호며 성되 강땡호여 미온 거동이 한풍렬일 궈즈니” (1a-1b)

언행을 조소하여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현경문의 단엄한 성품은 딸을 애중히 여겨 경솔한 행동을 일삼곤 하는 장인 장모와 대조를 이룸으로써 더욱 선명히 부각된다. 장인 주명기는 현경문이 자신의 질녀 육취옥과 음란한 짓을 벌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사돈댁에 찾아와 혼인을 물리자고 소동을 피우고, 장모인 후부인은 주여교가 잠시 행방불명되었을 때 현경문이 철소저를 재취하자 분을 품고 사돈 현택지에게 모욕적인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아내에 대해 애정이 없는 현경문은 이러한 장인 장모의 경솔함을 전혀 용납하지 못하고, 애꿎은 주여교에게 화를 돌리기만 한다. 뜻하지 않게 남편과 계속해서 불화를 겪던 주여교는 결국 유배를 떠나는 친정아버지를 수행한다는 핑계로 시택을 떠나게 되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남장을 하고 남편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친정에 은신하게 된다.

작품에서는 윤희빙이나 주여교에게도 편벽된 면이 없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두 남성 인물의 성격적 결합에 초점을 맞춰 부부갈등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권위적인 태도로 여성을 억누르려는 두 남성의 태도는 여성들의 만만찮은 항거에 부딪쳐 희화화되곤 한다. 현수문은 윤희빙을 자신의 첩으로 곁에 두려고 위력을 부리다가 윤희빙의 계교에 세 번이나 속아 사람들 앞에서 도리어 망신을 당하고, 현경문은 주여교를 냉대하며 부부관계를 맺지 못한 채 지내다가 ‘순양동자(純陽童子)’임이 발각되어 팔에 흉점을 찍히는 등 수난을 당한다. 작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사촌 장시랑 형제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작중에서 장시랑 형제는 아내를 지배하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할 따름인 현수문 형제의 부부관계를 폭로하며 희화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경직된 남성 중심의 가문 질서를 상대화하고자 하는 작품의 서술시각을 드러내준다.⁷⁾

두 아들과 대조를 이루는 이상적인 남성상은 가장이자 시아버지인 현택지이다. 그는 아들 형제와는 달리 위엄을 갖추었으면서도 자상한 성품을 지녀 며느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상적 가부장이다. 현택지는 며느리 주씨를 딸처럼 대하여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애정을 표현하는가 하면, 남장을 하고 전쟁터까지 나아가 이미 부녀자의 도를 잃었다며 시집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주여교를 오히려 위로하여

7)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옹쌍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7), 55-56쪽.

돌아오기를 청하며 아들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기도 한다.

석년의 으즈의 박헿헿 허물노 말미아마 현뵈 허다 풍푼를 지늬고 노변의 심싱 구스헿여 도라와시니 녁냥이 심원한 장뵈라도 한헿리니 부인 여즈의 심지 엿지 그리치 아니리요마는 인명이 재뵈헿고 화복이 관슈헿미니 즈고 성현도 오는 익을 면치 못헿샤 공부지 철환 텨하헿시고 땡의자 복을 누리지 못헿여시며 서뵈이 뉴리의 고초헿시고 성탕이 하되의 곤헿시니 그디 비록 삼척 녀익지나 아는 거시 족히 식아뵈노 혼헿 말을 기다리지 아닐 거시로되 아직 세스를 녀이 경녁치 못헿여 남복을 입고 도로의 분췌헿를 큰 누덕을 삼아 다시 칩강침미의 소임을 아니려 헿거니와 텨디 도판 이리코 자뵈자 달어셔인 헿여 남네 무고이 폐륜헿를 드지 못헿여시니 이의 만세 황애 현부를 위헿샤 지어 정문 표뵈헿시고 돈으의 정실노 도라보늬시니 (권6, 51b-52a)

또한 현택지는 윤혜빙에 대한 현수문의 무례한 태도도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아들의 방자함을 징계한다. 현수문이 윤혜빙을 자신의 첩으로 취급하여 함부로 대하자, 현택지는 사류 가문의 풍교를 어지럽혔다며 이를 준엄하게 단죄한다. 현수문이 윤혜빙을 단지 남성의 뜻에 복종해야 할 어린 여성으로만 여겨 멸시하였다면, 현택지는 윤혜빙이 강력히 주장하는 바 사문의 딸을 대하는 예우를 앞세워 아들의 행위가 완악하고 교만한 것임을 명시하고 규문을 대하는 데 지켜야 할 범도를 강조한다.

승상이 발연 대노헿여 진목 슈죄 왈 네 나히 하마 십오세 지나시니 속뵈 불변이 아니어늘 명가 규문의 돌입헿니 그 죄 죽엄 죽헿지라 내 텨운을 입사와 외람이 상위의 거헿여 풍화를 기다롭거늘 너긔튼 난류 꺾자를 두어시니 하면뵈으로 스류를 텨헿리요 어식 고두부복 청죄왈 해으의 죄 뵈샤무석이오나 쯔한 무고히 남의 규문의 드러가 작란헿미 아니라 윤시는 해으의 고인이라 맞춤 저긔 지뵈여 다른 녀지 업습는 고로 소즈의 처첩 츠즈미 혼는 죄 아닌가 헿와 가오미오 남의 부녀의 도장 속의 드러가미 아니오니 야야는 성노를 늦츠시고 다만 처음 소즈의 역명헿 죄로는 일뵈장을 마차도 감슈헿리로쇼이다 승상이 청파의 어히업셔 다시 말을 아니하고 좌우로 의관을 벗겨 꾸리고 밧을 느와 드스릴시 [...] 승상이 드튼 체 아니코 췌히 치기를 직혹헿여 이십여 장의 밧츠나 샤홀 췌이 업사니 장시랑이 말노 왈 슈으의 녀는 죄 이시나 다시 칭각컨뵈 제 말이 오른지라 형은 그만헿여 사헿라 승상이 불청 왈 그 완만헿 말이 더욱 통헿헿니 오십 장을 더어 너치라 (권3, 19b-20b)

이러한 현택지와 두 아들의 대조적 인물됨에 주목하면, 〈현씨양옹쌍린기〉에서 부부갈등은 상당 부분 현수문-현경문 형제의 성격적 결함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형제의 성격이 판이하게 그려져

상호 대비를 이루는 것은 이를 강조하려는 서술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질에서 문체의 단초를 찾는 한편,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준거로서 이상적 인물상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것이 〈현씨양옹쌍린기〉의 인물 형상화 구도이며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의식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현씨양옹쌍린기〉는 남성 인물들의 권위주의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여성 인물들의 주체적 향기를 부각한 작품이다. 호방하고 호색한 성격 탓에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남성 인물과, 지나치게 엄격하고 고집스런 성격으로 인해 여성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남성 인물이 형제의 모습으로 나란히 제시됨은 이러한 성격 요인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장치이다. 당시 독자들이 흥미를 느꼈던 지점도 이러한 개인의 독특한 기질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이었을 터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으로만 작품을 대하다 보면, 정작 여성 인물들이 처한 사회적 처지에 대한 섬세한 탐구는 차단될 우려가 있다. 윤희빙과 주여교의 경우 남편들의 권위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주체적 여성들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각각의 사회적 처지는 상이하다. 주여교는 어사 주명기의 무남독녀로서 유복한 환경에서 사족 여성다운 교육을 받고 자라 현경문의 정실부인이 된 처지이지만, 윤희빙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장시랑 집안의 하녀 설구에게 양육되어 현수문의 부실이 된 처지이다. 즉, 윤희빙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신분정체성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형제의 성격 차이에만 초점을 두어 두 부부의 갈등을 해석한다면, 이들 여성 인물들이 남성성에 대해 항거하고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부부갈등의 구체적 양상을 보다 섬세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주체적 여성상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성 인물들의 서로 다른 처지와 요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주여교와 윤희빙 두 여인이 겪고 있는 부부갈등의 상황을 각 인물의 사회적 처지와 관련하여 비교해보고자 한다.

Ⅲ. 여성 인물의 사회적 처지에 따른 부부갈등의 발생과 전개

주여교는 주어사의 무남독녀로서 유복하게 자란 인물이다. 그녀는 사족 여성다운 문재(文才)와 예모(禮貌)를 갖추고 있으며, 이로써 남편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현경문은 주여교를 냉대하면서도 간간이 그녀가 쓴 시나 편지를 볼 때면 감탄해 마지않는다. 일례로, 그는 자기 집안을 모욕한 장모의 죄를 속죄하려면 당장 자결하라며 주여교에게 칼을 보냈다가도 주여교가 보낸 준절한 답신을 보고는 “일변 심복 공경”하기조차 한다.⁸⁾ 즉, 현경문은 주여교의 재능과 인품에 대하여 내심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화가 나서 독주를 마시라고 명했다가도 주여교가 실제로 술을 마시고 혼절하자 “일시 그릇하여 부인의 귀테를 불안케 하”였다며 즉시 사죄하는 등⁹⁾, 현경문과 주여교 부부의 관계는 일정한 상호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싱이 역소하고 흥가지로 드러와 부모의 침슈를 살핀 후 직성각의 드러가니 럽전의 시의 영접하여 슈하를 열고 눈을 들미 소제 날호여 니러 동서 분좌홀시 총진 그 빅단 염광이 암실 가운데 도요홀를 보고 심하의 반갑고 익중홀되 저의 괴칙이 닝담하여 매화의 찬 서리 썩려집 곳튼니 슈작홀미 무익하여 목연단좌호엿더니 (권7, 8a)

차일 상세 싱을 불너 직성각으로 보내니 싱이 노홀미 익구준 소저의게 도라가 크게 치부홀고 이시나 부명을 항거치 못하여 즉시로 상대홀미 그 직용 성덕을 감동치 아니미 아니로되 그 아뵈 죄를 쫓의게 아니 쓰고 어딘 년좌홀리오 홀미 금석 곳튼 구든 마음이 더욱 어려오니 대강 부부 럽익이 기리 가리엿시미라 (권1, 40a)

위의 인용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현경문은 주여교의 예기(銳氣)를 못마땅해하면서도 그녀의 재능과 인품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이는 형인 현수문이 윤혜빙의 미모에만 탐닉했던 것과는

8) “…… 싱이 글을 보고 일변 심복 공경홀고 너모 널널홀물 분연홀더니…….” (권7, 52b) 연세대본에서는 주여교의 편지에 대해 “찬란한 필법이 사람의 안목을 놀리고 현황홀지라 총진 간필의 일변 공경홀고 미모홀는 중의 쏘홀 노홀더니”라 서술하여 그녀의 문재를 더욱 강조하였다. (권17)

9) “…… 싱이 우으며 사죄왈 앓가 일시 그릇하여 부인의 귀테를 불안케 하니 더욱 날을 염중홀리로다…….” (권7, 14a-14b)

분명 다른 점이다. 주여교로 변장했던 형아의 정체가 발각되고 주여교의 시인이 발견되는 과정에서 현경문이 “그 용색을 못 잊음이 아니라 그 맑고 높은 뜻과 청연한 성덕에 맞설 자가 없음”을 탄식하는 대목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사인이 비록 신흠 초의 은이 불합하나 경중하는 뜻이 비길 터 업더니 이제 구툰의 도라간 녀슬 도시 부르기 어려운지라 이날은 능히 강잉턴 막음이 오라지 못하여 참스하고 괴운이 오르는지라 몸을 썩혀 외당의 노와 잠간 괴운을 슈습홀시 당쥬스 등이 쏘한 이의 왓더니 그 괴식을 보고 비록 춤연하나 그옥이 보치고져한디 경업서 잠잠하니 사인이 체복을 입은 칩 광슈로 늦출 덩고 누어스미 즈연 안쉬 흐르를 면치 못하고 스스로 장뵈 아닌 듯 시븐지라 가마니 탄왈 쥬시 작인을 그러트시 하고 엇지 홀노 박복호미 그되도록 하여 십오 세도 초지 못하여 타향 고희이 되거나노 내 비록 일싱 환거치 못하여 취쳐하나 의가의 낙이 업스리니 곳터여 그 용색을 못 니잠이 아니라 맑고 높은 뜻과 청연한 성덕이 대뵈 업슬지라 (권4, 21b-22b)

주여교가 친정 부모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아 현경문과 대립하는 것은 이러한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현택지는 주명기를 오랜 벗으로서 극진히 대우하고 있다. 그는 혼인관계를 끊자며 혼서를 들고 달려온 주명기를 오히려 달래며 아들을 대신해 사과하기도 하고, 딸을 잃고 상심한 주명기에게 직접 약시증을 들며 건강을 염려하기도 한다. 주여교가 친정 부모에 대한 남편의 무례한 언행에 즉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가문 간의 오랜 상호 대등한 관계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주여교는 무남독녀로서 친정 부모에게 각별한 애정을 받고 자란 만큼 친부모에 대한 효심도 남다르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채 위장하고 물외객 운유자로 변장하여 떠들면서도 그녀는 오직 친정 부모님이 자신이 정말 죽은 줄로 알고 지나치게 슬퍼할 것을 염려할 뿐이다. 그녀는 친정 부모가 육취옥의 말만 듣고 현경문을 당자로 몰아세우는 등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남편이 그러한 장인 장모의 행위를 조소하는 데 대해서는 한을 품는다.

소계 모친이 즈기로 말미암아 점점 싹덕히시를 애답아 호고 진실노 칭의 무정하를 한하여 써 저로 더브러 부뵈 되를 원치 아니코 기뵈 규쥬의 뵈셔 종스코져 하나 (권1, 20b)

소계 청과의 다른 말은 니르지 말고 자가 모친으로써 대악 투부로 지점하여 조금도 반즈의 레 업난지라 노혀며 이드르를 이기지 못하여 괴운이 강기하여 고평디 군이 그르다 내 모친이 일시 도청도설의 와언을 신청하사 존위를 축범하여서니 맛당이 첩으로 하여금 부월의 쥬하나 한치 아니러니와 군직되어 엇지 츠마 대인자하여 엇지 이대도록 욱혀리오 (권7, 30a-30b)

반면 윤혜빙에게는 주여교와 같은 사족 여성으로서의 면모가 잘 부각되지 않는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현수문을 매혹시키기는 하지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장시랑의 집 하인인 설구에게 양육되었던 까닭에 명문 규수다운 문재나 예모를 수련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사회적 처지에 현수문의 호색한 성격 요인이 더해지면서 두 인물 간에는 위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작품에서 부각되는 것은 후자의 요인이지만, 이는 전자, 즉 윤혜빙의 신분적 처지 요인을 전제로 발현된 것이다.

현수문은 “옥을 보면 그릇마다 채오고저 하고 꽃을 보면 가지마다 찍고저 흐”는 호방한 인물이며¹⁰⁾, “오늘 술이 이시면 취하고 너일 일이 이시면 당흐”면 된다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등 일체의 예법이나 규범보다도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호색한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 사실이다.¹¹⁾ 그러나 결코 모든 여성에 대해 것처럼 강압적인 것은 아니다. 그는 본처 하부인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며, 첩을 들이는 일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나마 미리 의논한다. 또한 그는 조정에서 어사의 직임을 맡고 있는 고관으로서 그 지위에 해가 될 정도로 색을 밝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가 윤혜빙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분명 그녀가 장씨 집안의 여종(소차두)이라 불러 무방한, 천한 신분의 여성이라고 단정한 뒤의 일이었다.

당신이 설구를 불너 너즈의 근본을 무르니 설귀 일이 요란함을 두려 써치고저 하나 본디 언변이 업는 고로 실노 빼 고하니 본디 질네 아니라 노상의셔 어더 길년 지 늑칠 년이니 나히 이제야 십이 세라 하니 확실히 웃고 왈 연즉 더욱 쉬우리니 제 칭강하여도 용부 숙즈의 정실 되니의셔 낫지 아니라 내 부모기 옛자와 취하리라 하니 설귀 민망하여 덕왈 그 녀지 비록 나히 어리나 뜻이 높고 어려오니 일러도 듯지 아니하면 엇지 흐리었고 당싱 등이 고평디 어미는 우은 말을 말나 제 비록 즐겨 아니나 덕장뵈 뜻을 둔 후 엇지 소차두의 절제를 바드리오 (권2, 36b)

10) 권2, 35a.

11) 권2, 46a-46b.

싱이 소리를 업히 호여 왈 네 근본을 드러니 불과 노변 질으로 설구의 양혹호 배라 호거늘 감히 노아의 말을 답지 아니니 중히 다스릴 거시로되 나히 어리다 호미 용서호노니 노아와 의견을 벗기라 (권2, 45a)

이후 윤희빙이 명문가의 딸임을 확인하고서도 계속해서 그녀를 하대하며 함부로 하려 했던 것은, 현수문이 그녀를 여전히 정실 하부인과 대등한 사족 여성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매우 의문스러운 현상이다. 윤희빙을 천한 여성이라 단정하고 함부로 대하는 현수문의 태도는 분명 신분 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녀가 사족 출신임을 알고서도 태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심지어 윤추밀과 그 아들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윤희빙을 ‘비첩’이라 부르며 위협하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추밀이 크게 잔잉하여 손을 잡고 위로호며 어스를 어서 모라 너치라 호니 싱이 조금도 노호 빗치 업서 다압 소저의 고티 드러 안자니 소제 더욱 호히 너겨 왈 야애 소녀를 한 쟈나 더 살과져 호시거든 광각을 물니치시고 그러지 아니면 제형의 침소로 올라지이다 어시 미소호고 눈으로 써 소저를 보며 닐오되 그되 날노써 광각이라 호나 임의 나의 비첩지널의 이시니 엇지코져 호는다 추밀이 힘으로 저를 물니칠 계교 업서 녀아를 닛그러 너려 호니 싱이 닛소호고 문을 막아서니 삼윤이 분녀호여 밀치나 어시 곱트여 방차호미 업사되 잠즈리 틱산을 지음 갖트여 그런 곱시 업더라 (권3, 16b-17a)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은 현부와 윤부 간의 문벌의 고하에 따른 결과로 설명된 바 있다.¹²⁾ 하지만 문벌의 고하만으로 이를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윤추밀이 현승상보다 지체가 낮은 점, 윤부가 현부에 비해 별열로서의 위상이 떨어지는 면은 물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수문인 추밀의 딸인 윤희빙을 마음대로 농락해도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원인은, 윤희빙이 비록 윤부 태생임은 확인되었으나 그에 걸맞은 사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미 잃어버린 상태라는 점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녀는 윤추밀이 잃어버린 친딸임은 분명하나, 오랜 세월 장시랑 댁에서 하인 대우를 받고 양육되면서 본래의 신분과

12) 이영택, 앞의 논문, 113-114쪽.

현재의 실상이 부합하지 못하게 된 처지이다. 현수문과 마주쳤을 때에도 그녀는 행랑(익랑)에서 베를 짜고 있었고 그런 까닭에 외간 남성과 마주쳐서도 얼굴만 돌릴 뿐 쉽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없었다.

일일은 외구 장시랑 틱중의 니르러 말씀하다가 여측후라 나오더니 동녘 낙양의 일위 소녀지 등도라 안자 뵈를 띄거늘 뒤호로 보니 구름 깃튼 머리 싸희 지혔고 붉은 귀미티 영괴 즙인호지라 심이 고이히 너져 기춤호고 나아가니 그 녀지 놀나 도라보고 뱃비 뵈들의 나려 늦출 두로하니 옥면 주순과 년협 단순의 빅티 승절하니 심이 디경 황홀하여 무려 왈 내 이곳의 자로 출입하나 일작 보니 못하여더니 근본이 었던 너진다 두어 번 무르티 응답지 아니호노노 정언 간의 안호로서 당성기 유모 설귀 나오다가 놀나왈 노애 었지 더러운 방의 와 겨시니잇고 (권2, 35a)

이런 처지에서 윤희빙은 현수문에게 일방적으로 능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친부모와 상봉한 뒤에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남는다. 윤횘밀 부부로서는 상심하면서도 자신들의 딸이 부실로나마 현수문의 아내가 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츄밀이 천만 몽외라 대경하여 말을 못하니 소저의 춤슈호미 싹홀 파하고 들고 시브니 사랑이 웃고 왈 형이 질녀를 일호미 가운의 춤담호미니 저 소년 남즈의 일시 호방을 현마 었지호리오 형은 모로미 과도히 놀나지 말나 나의 질이 쏘호 하등이 아니라 그티 류류스방호나 으질 깃튼 영웅 군즈는 었기 어려오니 지위 비록 노즈나 니 쏘 녁으의 팔지니 었지호오 윤희공이 기리 탄왈 싹홀 일혀실 제는 호 류리 비천호엿더니 요형 즙녀의 유신희미 었다호니 만분 다형호니 었지 한호리오 상서를 향하여 녁으의 무홀호를 사례호니 상제 불감호를 일킷고 크게 불평호여 호더라 츄밀이 쇼부를 직축호여 녁으를 더브러 도라오니 두부인이 천만 의외에 일혼 싹홀 어드니 그 슬프며 깃부미 일필 난기라 부인이 녁이 현호스의 비첩 되엿던 줄을 듯고 녁으를 비록 어드나 향방의 이롭다운 즙미를 보지 못호여 남의 직취로 도라가니 었지 한호지 아니호오 츄밀이 탄왈 부인은 아직 모로노도다 직취로 마즐진티 무어슬 탄호리오마는 현공 집의 여츙여츙 하여 석일 군상 면전의셔 가모 호나 두를 결단호여시니 쇼네 당당이 비첩이 되려니와 저를 죽은 가슬 호하더니 이제 비록 위치 나즈나 서낭의 풍치는 녁으의 불감망이라 부인은 파너치 말나 부인이 더욱 놀나 용속지 아닌지라 기리 탄홀 분이오 (권3, 4b-6a)

윤희빙은 설구에게 양육되면서도 어린 시절 부귀한 집에서 자랐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친부모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은 “결단코 상한 천쥬 아녀어늘” 현수문에게

부당한 횡포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분노한다. 그러나 그녀를 기른 설구가 현수문에게 윤혜빙이 혹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본디 향촌의 신장하여 레모를 아지 못하”는 여인일 뿐이다. 윤혜빙에 대해 “문득 아주 정정한 규수인 체하지만 나의 첩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호령하는 현수문의 태도는 이러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시 청과의 어히업고 무안분노하여 속모를 향하여 주왓 윤시 비록 속모 친질이나 오만방즈 근중하미 태심하니 서로 얼굴만 보고 언어 상통만 하여도 의범 부부지의 당연커늘 문득 이조 정명하 규원 태하고 준절이 칙하였거니와 윤가 너저 승턴업디하느 직조 이시나 슈문의 첩 밧기는 지느지 아니하리이다 (권3, 11a-11b)

실상 〈현씨양옹쌍린기〉에는 사족 출신이지만 현재는 몰락한 처지가 된 여성이 여럿 등장한다. 귀형녀 또한 본래는 유생의 딸이었으나 가난으로 인해 윤부의 시녀가 된 경우이며, 주여교의 사촌인 육취옥도 유생의 딸이었으나 부모가 구물한 뒤 비슷한 처지에 처한 인물이다. 특히 육취옥은 유생의 딸이라고는 하나 행실이 매우 경박하게 그려져, 사족 여성으로서의 예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사문벌열에는 시집갈 수 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는 등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녀가 스스로 등문고를 올려 현경문의 부실이 되게 해달라고 황제에게 하소연하는 대목은 이러한 복잡한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신 육취옥은 유생 녹완의 딸이라 신의 팔찌 기박하여 부피 구물하고 어스 유명기는 신의 외귀니 사랑하물 넘지 아니케 하고 피 귀일녀를 두어시니 출방혹사 현경문의 체라 현칭의 위인을 보미 혼긋 옥면 유평의 기특할 뿐 아니라 덕칭 기질이 당당이 타일 일인지하요 만인지상이 되리니 부영쳐귀는 자고 상식이 낭금 퍽목과 현신 퍽주는 뜻있는 자의 홀 비니 신의 부피 구물하고 육친이 회소하여 외구의게 의지하여시니 고문벌열은 바라지 못홀지라 그옥이 종신대사를 생각홀진디 비록 지실이 될지라도 현경문의 기질 곳 아니면 규방의 홀노 늙을지언정 용부숙즈의게 허신치 아니리니…… (권1, 45b-46b)

육취옥은 재실로나마 벌열사족과 혼인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몰락한 사족 여성의 형편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사촌인 주여교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여 불만을 표하며 자신도 현경문과 같은 전도유망한 별열가 남성과 혼인하고 싶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으리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하지만 천자의 주선으로 혼인이 성사된 뒤에도 남편인 현경문은 육취옥을 경박하다 하여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육취옥은 윤희빙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생각하는 신분 정체성과 그에 대한 남편의 대우가 어긋남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적 여성 인물들과의 비교를 통해 보면, 사족으로서의 자의식은 분명히 지니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없었던 여성들이 당시 실제로 적지 않게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18세기 당시에는 당쟁이 심화되면서 한 가문이 급격히 몰락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몰락했던 가문이 환국이나 왕권 교체를 계기로 신원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났다. 이러한 숙종대 이후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가문소설의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했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진명이나 조태채 가족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본래는 별열 가문이었으나 왕권이 교체되면서 역문(逆門)으로 몰려 가산을 적몰당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죽거나 유배되고 심지어 관비로 정속되는 일도 실제로 발생하였다.¹³⁾ 윤희빙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하층민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우회적 반영일 수 있다. 정치적 사건은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기에는 꺼림칙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몰락한 사족 집안의 딸이 별열가의 첩이 되는 일은 실제로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씨남정기>나 <임화정연> 등에서 가난한 양반의 딸이 별열가의 첩이 되는 상황을 찾아볼 수 있고, 좀 더 나중의 작품들이긴 하지만 <채봉감별곡>이나 <귀의 성> 등에서도 벼슬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 딸을 별열가에 첩으로 보내려 했던 몰락 양반들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희빙이 현수문에게 천대를 받으며

13) 실록에 서술된 신임사화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노론 4대신 가문에서는 여성들도 상당한 화를 입었다. 일례로 『영조실록』 원년(1725년 4월 19일)의 기록에 의하면 이진명의 며느리인 이술지의 처는 옥구(군산)의 관비로 편입되어 심한 곤욕을 당하였다. 또 『경종실록』 3년(1723년 12월 17일)의 기록에 의하면 조태채의 딸은 신임사화 직후는 아니었으나 결국 아버지의 일과 관련하여 흑산도에 유배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http://sillok.history.go.kr>).

수모를 당했던 일도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으리라고 볼 수 있다. 주문갑제의 화려한 집에서 생활하던 기억을 분명히 지니고 있으나, 어느 한날 갑자기 부모를 잃고 하녀의 신세가 되어버린 윤혜빙의 사연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러한 당대의 상황이 자리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잦은 한국 정국에서 역적 가문이 몇 년 만에 충신 가문으로 뒤바뀌는 사례도 적지 않았음을 상기할 때, 윤혜빙이 극적으로 잃어버린 부모를 되찾은 것 또한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벌열가의 경우에는 대개 무사히 본가로 돌아와 빼앗긴 가산을 돌려받고 옛 신분이 회복되었을 것이지만¹⁴⁾, 연좌되어 처벌을 받은 일가의 부녀자들 중에서는 유배생활을 하거나 가산을 빼앗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처지가 <현씨양옹쌍린기>에서 윤혜빙의 모호한 신분 정체성을 통해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녀가 평소 열망해온 바 부모를 되찾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현수문의 잉첩이 된 처지를 벗어나는 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힘이 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면¹⁵⁾, 윤혜빙의 극적인 신분 회복은 그녀가 지닌 사족으로서의 자의식이 허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뿐 실상 그녀의 형상은 육취옥이나 다름없는 몰락 사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작품에서는 유난히 윤혜빙의 미모를 부각 함으로써 그녀가 육취옥과는 다른 류의 인물임을 강조하지만, 외모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인물들의 처지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상층 사족 남성의 부실로 생활하면서 심적 고통을 겪는다. 남편이 찾아주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고, 외모만 탐하는 남편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한다. 남편으로부터 인격적 대우를

14) 예컨대 <엄씨효문청행록>에서도 벌열가(오왕 엄백경의 가문)에서 어릴 때 딸(엄월혜)을 잃었다가 되찾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온 것으로 묘사되며, 인연을 맺고 아이까지 낳은 벌열가의 남성(윤창린)과 원비의 자격으로 혼인하게 된다.

15) 윤혜빙은 윤추밀의 딸임이 밝혀짐에 따라 정식 육례를 갖추어 현수문과 혼인하게 되나, 현수문에게 멸시당하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혼례 후 현수문은 부하를 보내 도망간 윤혜빙을 노상에서 잡아오라고 명하는가 하면, 결국 시집으로 돌아오는 윤혜빙의 가마를 못사람들 앞에서 깨뜨리기도 한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직면한 ‘부부갈등’이란 남성의 일방적인 모멸과 핍박에 대한 인내 혹은 소극적 회피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려진다. 육취옥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남편의 냉대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를 반영한다.

물론 몰락한 처지의 여성들이라고 해서 남편의 하대를 참고 견디기만 한 것은 아니다. 윤희빙의 경우 계략을 써서 현수문을 세 번이나 통쾌하게 뚫어주는 대목에서 육취옥 등과는 달리 적극적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¹⁶⁾ 이는 오히려 예법에 얽매어 있는 주여교나 하부인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윤희빙이기에 가능한 현실 대응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그녀는 결국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여 현수문에게 굴하고 말지만, 이를 거부하고자 안간힘을 썼으며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저항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여성 인물의 구체적 처지에 주목하여 작품의 각 부분들을 다시 읽어보면, 남편의 억압에 반발하여 윤희빙과 주여교 두 여성이 나타내는 주체적 행보에도 일정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먼저, 주여교의 행적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일광대사와의 만남 및 그의 도움을 통한 전쟁 출전이다. 주여교는 친정아버지의 유배에 따라 나섰다가 형아의 흉계로 실절할 위기에 처하자 절벽에서 투신한다. 이에 그녀의 직성인 ‘천상 옥녀성’의 위기를 감지하고 찾아온 일광대사가 주여교를 구해 자신의 처소로 데려가 도술을 가르치며, 전쟁터에 나아가 남편과 시아주버니를 돕도록 지시한다. 이후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운유자가 실은 주여교였음이 밝혀지면서 그녀는 개인적으로 나라의 정표를 하사받을 뿐 아니라 시택과 친정의 영예 또한 드높이게 된다.

상이 크게 기러 굴으샤되 쥬가 녀지 삼척 소녀즈로 요도의 독회를 버셔나 국가의 호디호 공을 세오니 짐이 미양 운유자를 낫지 못하여 복이 열뼉 도당의 두지 못호를 호호더니 이제 쥬시 줄 알미 국가의 큰 직조를 일호를 호호거니와 짐이 만승 천지 되어 여 이런 일을 균을 포치 아니면 엇지 네의와 절호를 권장호리오 호시고 특지로 쥬시를 지성인현렬호정숙비의 다시 의렬군을 더오시고 녀총지를 제슈호시고 다시 쥬쇼스를 빼 아름다운 쥬 두어시므로 녀남 무쥬 날곱 고을 식읍을 더어 존총호는

16) 윤희빙은 혼인 초야에 시녀인 귀형녀를 자기 대신 신방에 들여보내 취한 현수문을 속이는가 하면, 현수문의 부하들을 속여 노파나 인형을 자신으로 착각해 잡아가도록 만들기도 한다.

뜻을 뵈시고 전일 윤투자 봉직하신 서령벽을 뵈 충직을 주어 웃고 갈오사되 고인이 부영처귀를 날넋거니와 경은 처영부귀하미 엇더하느다 축 이십사 읍으로 뵈 경을 주느니 모로미 어진 안희 두어시물 알고 슈이 마즈 도라와 부뷔 화락홀지이다 (권6, 46a-46b)

이처럼 주여교는 목숨을 걸고 정절을 지키는 결과 여성에게 허락되는 최대치의 사회적 보상을 얻게 된다. 처음 실절할 위기에 처해 절벽에서 자결했을 때 이미 금지어필로 정표를 하사받았던 그녀는 연이어 전장에서 남편을 도와 승전을 이끌어낸 공로로 열행을 표창받는다. 또한 그녀는 일광대사가 준 봉서의 도움으로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남편을 위기에서 구한다. 봉서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그녀는 병든 남편의 목숨을 구하고, 봉서 안의 선약을 활용하여 남편 행세를 하는 월청 도사를 처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들 또한 어김없이 주여교 본인과 양가에 큰 영광을 불러온다.

상이 이의 경문을 본직 니부총직 평남후를 봉하시고 이번 월청 잡오미 쥬시의 공이라 하사 소소로 뵈 태즈소소 동평장스를 계슈하사 쫄을 잘 나흔 공을 갑호시니 [...] 쥬소소는 비록 일개 녀으를 두어시나 처음 날굽 고을 식읍을 었고 두 번직 높흔 상작을 어드니 빅인의 열아들 두니도곤 더은지라 시인이 탄하더라 (권9, 43a-44a)

이처럼 주여교는 규범적 열을 실천함으로써 가문에서 존재 가치 및 존엄성을 인정받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시댁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망설임 없이 참여하는 모습이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주여교 자신의 가문 내에서의 입지 강화와 친정의 명예, 그리고 남편으로부터의 후대이다.¹⁷⁾ 스스로 남편에 대한 열행을 마땅한 도리로 받아들여 실천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해 충실한 사회적

17) 일례로 천상계는 현경문의 꿈에도 나타나 주여교가 범상한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며 후대할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어시의 현총직 음훈이 유유탕탕이 한 곳의 니르니 중궁궐궐과 금옥간안이 휘황하고 청의 동즈와 홍의 너선이 날넋거늘 칠보 쥬렴을 높히 걸고 낭위 턴선이 금옥 교의 우희 단좌하였다가 총직을 보고 청하여 동녀 슈석의 좌를 명하거늘 [...] 상선이 이의 갈오되 본디 아릅다운 보비와 괴특한 사름은 찾기를 슈이 호느니라 군이 하세호연 지 오리지 아니되 상데 그 인지를 앓기사 금년의 도라을 슈러니 월궁녀선은 인간 쥬명괴 네라 즉금 몸으로 뵈 그 명을 대코져 호미 턴데 감동하사 군의 슈복을 더어 영복을 누리게 호느니 군은 너모 괴망흔 테모로 현처를 막히 말고 호호 범연흔 처즈로 아지 말나…….” (권8, 21b-22b)

보상도 뒤따른다는 점에서 그녀는 시택 및 남편과 대립하며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을지언정 한편으로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 또한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해보면 윤혜빙 또한 현수문과 어쨌든 정식으로 혼례를 올린 사이이기 때문에, 열을 행함으로써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받을 만한 여지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녀에 대해서도 천상계 전생담이나 천상적 존재의 도움이 개입될 만하고, 이를 통한 열행과 보상의 서사가 전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실의 처지에서 그녀가 행하는 열행은 비록 기특하다는 평가는 받을지언정 본처인 하부인을 제치고 높은 사회적 명예나 지위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주여교에 대한 천상계의 개입을 통해 알 수 있듯 당시 여성이 열행을 통해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바, 그나마 가문 내에서의 위상이 확고한 주여교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상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었으나 윤혜빙의 경우에는 그러한 낭만적 환상이 아예 차단된다. 가문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녀로서는 남성의 횡포를 피하여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힘겨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현씨 가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부에서 부실로 대우받는 삶은 그녀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훼손할 따름이다.

조선 후기 들어 신분을 막론하고 열녀에 대한 표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실상은 남편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행위만 사후 정표의 대상이 되었음을 상기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열’이란 강요된 규범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춘향전>이나 <옥루몽>에서처럼 하층 여성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주체적으로 열을 실천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이 곧 실제 현실이었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현씨양옹쌍린기>의 윤혜빙의 경우는 오히려 상층 남성에게 선택을 당해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경우이므로 ‘열’의 실천에 주체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윤혜빙은 현수문과의 관계에 강한 거부감만을 나타낼 따름이며, 이 점에서 주여교와 다른 양상의 부부갈등을 보여준다. 현수문과의 부당한 혼인관계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만이 그녀에게는 자존감을 지키는 방안이었던 까닭이다.

즉, 주여교와 윤혜빙은 남편에게 저항하는 주체적 여성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지만, 저항의 방식이나 결과 면에서는 다른 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주여교가 남편에 대한 열행을 통해 가문 내에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확보하며 아울러 가문 전체의 위상도 높이는 방식으로 그녀다운 주체성을 발휘한다면, 윤혜빙은 남편과의 위계적인 관계를 일절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지키려는 주체적 노력을 보여준다. 두 여성은 모두 사족 출신으로 그려져 있으나, 한쪽은 상층 사대부가문에서 성장하여 별열가의 정실부인으로 들어와 있는 처지인 반면 다른 한쪽은 사족으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확고하지 못한 처지이다. 전자의 경우 열의 실천은 가문 내에서 자신의 권한을 향유하고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필요한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 열이란 미화된 관념일 뿐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한 가치였다 하겠다. 작품에서 두 여성의 주체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현됨은 이러한 사회적 처지의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본다.

IV. 맺음말

주지하다시피 〈현씨양옹쌍린기〉는 가문소설의 대중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부부갈등과 관련하여 폭넓은 독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다양한 내용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육취옥, 귀형녀와 같은 몰락한 사족 출신 여성들의 삶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음은 이러한 인물들이 실제로 상층 여성 독자층의 주변에 존재하였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윤혜빙과 같이 신분이 다소 애매한, 사족 출신임을 스스로 자부하고 객관적으로도 그 혈통이 인정되지만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처지의 여성들이 겪었을 부부갈등의 상황 또한 독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독자들 스스로 그런 일들을 겪어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사연을 통해 비슷한 사례를 접해본 경험은 드물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처지의 여성 인물들은 낙선재본 〈현씨양옹쌍린기〉를 즐겨 읽었을 상층 여성 독자들이 강하게 스스로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독자들로서는 사족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이 분명한

주여교가 보다 편안한 공감 대상이었을 것이고, 남편 현경문에게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부부관계를 주도해나가는 주여교의 당당함이 한층 매력적으로 다가왔음직하다. 현수문의 폼박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윤혜빙의 처지는 여성 독자들에게는 연민과 쾌감은 불러일으켰겠지만 동일시하고 싶은 핵심적인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글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지만,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동호 소재 세책점에서 유통된 연세대본에서 윤혜빙의 형상이 변화됨은 이러한 향유 맥락에 변화가 초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세대본의 경우 평민 남녀층에까지 독자층이 확대된 상업적 세책본으로서, 여성과 하층민에 대한 공감적 시선이 확대되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¹⁸⁾ 윤소저나 귀형녀와 관련한 회답이 약화되어 있고 현수문의 횡포가 가감 없이 노출된다는 것이다.¹⁹⁾ 중하층 독자들에게는 몰락한 처지의 사족 여성들을 주변에서 발견하고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주여교-현경문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의 뼈대는 쉽게 바뀌기 어려웠을 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윤혜빙을 비롯한 주변부 여성 인물들의 삶에 대한 공감이 강화되었음은 상당히 의미 있는 현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생각해보면, 낙선재본의 경우에도 윤혜빙이 적은 비중으로나마 등장하는 것은 상층 독자들 또한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몰락한 사족 여성들에 대해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꼈던 까닭일 것이다. 독자들은 이들의 처지를 통해 사족 집단 전체가 직면한 신분질서의 전반적인 위기를 감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또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언젠가는 자신도 그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억압당하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는 윤혜빙의 모습을 통쾌하게 그린 것은 이러한 독자들의 심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현씨양옹쌍린기〉의 부부갈등은 개인 간의 기질 대립에서 비롯되는 섬세한 재미를 일차적으로 제공하는 작품이나, 그러한 부부갈등의 구체적 전개가 인물들의 사회적 처지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18) 이다원, 앞의 논문, 84-86쪽.

19) 위의 논문, 72-83쪽 참조.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수문에 대한 윤희빙의 저항은 단순히 여성의 주체성이란 측면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 작중에서 주여교의 형상이 중심적 위상을 차지함은 사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가문소설 독자들의 존재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와 함께 부차적으로나마 윤희빙과 같은 하층 사족 혹은 몰락 사족의 처지와 부부갈등을 다룬 것은 그러한 처지의 여성들이 독자들의 주변에 존재하고 공감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현씨양옹쌍린기〉가 보여주는 가문소설의 대중화라는 성과는,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산출되는 현실감의 강화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낙선재본 <현시량옹쌍린기>(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 이윤석·이다원 교주, 『현씨양옹쌍린기』 I·II. 경인문화사, 2006.
-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http://sillok.history.go.kr>).
- 김지연, 「〈현씨양옹쌍린기〉의 단일 갈등 구조와 인물 형상의 관계」. 『민족문화사연구』 제28권, 2005, 220-247쪽.
- 이다원, 「〈현씨양옹쌍린기〉 연구: 연대본 ‘현씨양옹쌍린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99쪽.
- 이영택,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14쪽.
- 이지하,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93쪽.
- 최기숙,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화적 재배치-‘현경문-주소지’ 부부 관련 서사분석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0집, 2010, 301-337쪽.
-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옹쌍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93쪽.

국 문 요 약

18세기 후반 창작된 것으로 알려진 <현씨양옹쌍린기>는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남녀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다. 호방한 형 현수문과 냉담한 아우 현경문의 성격 대비로 인해 부부갈등의 양상은 다채롭게 전개되며 독자의 흥미를 자아낸다.

그러나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부부갈등을 남녀 개인 간의 성격 대립으로만 보아서는 여성 독자들의 구체적인 공감 지점이나 작품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충실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물의 사회적 처지에 초점을 맞추어 두 부부의 이야기 사이의 차이를 탐색해보았다. 결론적으로 현경문-주여교 부부의 갈등이 대등한 신분 정체성을 전제로 긴장감 있게 전개되는 반면 현수문-윤혜빙 부부의 갈등은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여성 인물에 대해 남성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방적인 억압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그 이면에는 몰락한 사족 계층 여성들의 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현씨양옹쌍린기>의 부부갈등은 개인 간의 기질 대립에서 비롯되는 섬세한 재미를 제공하며 주체적 여성상을 실감나게 창조해낸 작품이나, 그러한 부부갈등의 구체적 전개나 주체적 여성상의 형상화가 인물들의 사회적 처지를 전제로 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투고일 2014. 12. 23.

심사일 2015. 1. 26.

게재 확정일 2015. 2. 10.

주제어(keyword)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성격 대비(personality contrast), 신분 정체성(social status identity), 몰락 사족(ruined nobles), 독자(readers), 향유맥락(context of reception)

Abstracts

Sociological Analysis of Women Characters and Their Marital
Conflict in *Hyeonsiyangwoongsangrinki*
Kim, Suh-yoon

Hyeonsiyangwoongsangrinki, regarded as a work of late 18th century, is a story about conflict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contrast of personality between two brothers makes the story more interesting, generating various sub-stories due to their unique personality.

But if we focus only on the personality of men, the point where women readers sympathized with women characters cannot be caught concretely. So in this article, the social situation and identity of women characters is dealt more closely. The conflict between Hyeonkyeongmoon and Juyeokyo is developed tightly on the basis of mutual equality of social status. On the contrary, Hyeonsoomoom unilaterally oppresses Yoonhyaebing. He doesn't treat Yoonhyaebing as a noble woman as she commands herself. Yoonhyaebing can be interpreted as a type of ruined noble woman readers can easily find nearby.

Hyeonsiyangwoongsangrinki is highly reputed as a work creating independent women characters vividly. To acknowledge that poin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conflict between husband and wife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social context of characters and readers.